권력 정비 부산한 김정은… 다음 후계자는?

여동생 김여정에 '후계 0순위' 줄까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권력 정비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초부터 정권 차원의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당과 내각, 군부의 파워엘리트를 교체하고 조직 체계를 가다듬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친정 체제의 강화와 향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인사 포석이다.

5월 하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군부 조직과 인사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을 결정했다.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거나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밖에도 눈여겨봐야 할 결정이나 조치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무력 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는 대목에서는 김정은이 북한군의 전투력 강화와 조직 쇄신을 위한 조치들을 속속 취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체계와 조직 운용을 효율화하는데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김정은의 호불호와 신임이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조치다.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개발 등에 공을 세운 이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점이 주목된다. 공군 사령관 출신인 이병철은 김정은이 집권 초부터 관심을 보여온 미사일 개발에 기여했고, 발사 성공 시 김정은의 권유로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김정은이 후계 권력을 장악할 때 가장 먼저 가진 직책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권력을 거머쥘 당시에도 김정은은 이 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만큼 핵심 요직이고, 북한 권력과 군부를 장악하는데 필수적인 직책이란 얘기다. 이번 사기진작 조치로 향후 핵과 미사일을 결합한 대미 전략무기 체계를 완성단계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이병철에게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 박정천에게 북한군 차수(대장보다 높고 원수보다 낮은 군사 계급) 칭호를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안 통치를 담당하는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도 대장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막강한 지위에 비해 존재감이 다소 처지는 듯하던 국가 보위기구에 다시 힘을 실어줌으로써 김정은 친정체제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사태 이후 좌절감에 빠진 북한이 대외관계와 남북 당국 대화를 단절시킨 뒤 내부 체제 정비에 돌입한 상황에서 진행된 일련의 조치들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과 12월 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그리고 올해 들어 잇달아 개최된 노동당의 주요 회의와 4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당과 내각, 군부 등의 권력 조직 전반에 손질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의 견해다.

이 과정에서 권력 인물의 부침이 드러나고 힘이 실리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조직이 판별되기도 한다. 정부 대북부처가 파악한 첩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 권력 내부의 인물·조직 변동이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가 5월에 공개한 『2020 북한 인물 정보』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정치국의 교체 비율이 80%에 가깝다. 또 우리의 내각 격인 국무위원회 멤버 11명 가운데 9명이 교체됐다.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이 자료는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한 북한 권력 변동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정부의 판단이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295명의 북한 파워엘리트가 실린 이 발간물과 관련 통일부는 "김정은 친정체제가 공고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열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는 조직과 인사 면에서 세대교체와 김정은이 선호하는 인물의 발탁이란 특징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노동당 부위원장 12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물갈이되면서 대미협상 등 외교라인을 책임져온 이수용 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교체되는 결과가 드러났다. 후임으로는 러시아 대사 출신인 김형준이 임명되면서 향후 대미·대외 정책에서 새로운 북한의 전술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렸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략 구사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당 전원회의 인선 결과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개됐다. 김정은이 수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에 하노이 노딜 사태의 책임이 있는 라인을 퇴진시키고 미사일을 비롯한 전술무기 개발에 공적을 인정받은 인물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김형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이선권 외무상과 신무기 체계 개발을 담당한 이병철 당 부위원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김정호 인민보안상이 국무위원회에 합류했다. 반면에 이선권 외무상과 최부일 전 인민보안상,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 이수용 당 전 부위원장(외교 담당), 태종수 전 부위원장(군수 담당), 이용호 전 외무상 등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같은 핵심 자리의 직책 변화나 노동당과 군부 주요 인물의 동향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인사들의 움직임이다. 공식적인 직위나 타이틀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인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떠오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한 건 여동생 김여정과 베테랑 노동당 관료인 조용원이다. 당 제1부부장직을 맡은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최고 실세로서 자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존재감과 실세로서의 파워가 드러난 건 김정은 건강 이상과 사망설 등의 과정을 통해서다. 지난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생일인 같은 달 15일 할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빼먹으면서 유고설을 촉발시켰다. 국제 사회의 시선이 김정은과 북한 권력에 쏠린 상황에서 참배행사에 참석한 당과 군부 핵심 가운데 김여정과 조용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됐다. 곧이어 이들 두 사람이 김정은의 원산 체류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북 정보당국에 포착되면서 '엄중한 시기 최고지도자 곁을 지키는 인물'로 관심을 끌었다.

유고설을 불식시키며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을 공식 수행한 인물 6명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발견됐다. 박봉주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등 행사 단상에 김정은 양옆으로 각각 3명씩 포진한 인사들 가운데 김여정·조용원 제1부부장은 단연 돋보였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 한동안 활동이 뜸하던 김여정은 든든한 오빠의 후광을 업고 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지난 3월엔 북한 당국의 공식입장을 전하는 담화 발표자로 나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고,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믿을 건 혈육뿐"이란 생각을 갖고 있을 오빠의 후견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을 말을 타고 등정함으로써 북한 세습 정권을 이어가는 이른바 '백두혈통'(김일성과 그 일가를 지칭)의 일원임을 과시했고, 지난 4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내줬던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도 다시 거머쥐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물론 세간의 관심은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안 카드로 자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서 일찌감치 핵심 직책을 맡아 노동당의 사업을 챙겨온 김여정은 명실상부한 2인자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권력 투쟁이나 숙청 가능성 때문에 몸을 사리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다른 고위 간부들과는 다른 입장이다. 하지만 유사시 김정은의 후계자로 북한 권력을 넘겨받아 수령의 지위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권력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유고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북한 권력을 전망하고 점쳐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36살 젊은 지도자의 대안세력을 벌써부터 관심 가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조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포스트 김정은' 체제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특히 미국의 유력 매체와 전문가들은 정보 당국의 첩보 등을 근거로 현재 노동당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들 모두 아직 10살 안팎의 어린아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왼쪽)·조용원(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보 당국도 일찌감치 김여정을 주목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김여정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가 대두했다. 당국이 이혜훈 당시 정보위원장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도 김여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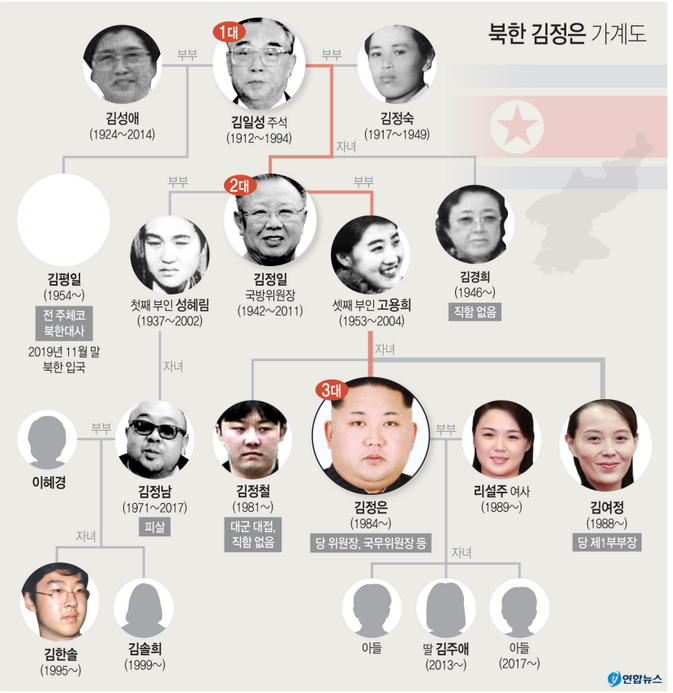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이 김여정과 형 김정철을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 통치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귀띔했다. 물론 형 정철의 경우 호르몬계 질환 등으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순위에서 동생인 김정은에게 밀려났다. 김여정이 사실상 유일한 혈통 내 후계자란 얘기다.

김여정의 경우 김정은 집권 3년 차인 2014년 권력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해 3월 김정은을 수행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장에 나왔고, 투표함에 표결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됐다.

당시 '노동당 책임일꾼'으로만 불렸던 김여정은 11월 노동당 부부장으로 호칭됐다. 당시 25살 나이였다. 아버지인 김정일의 경우 28살인 1970년에 선동부 부부장이 됐고, 고모 김경희는 30살에 국제부 부부장에 올랐다는 점만 봐도 권력 등장을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평양 권력의 핵심층과 엘리트 관료 사이에서는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는 말이 번진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움직이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요직인 조직지도부의 사실상 책임자를 맡아 당과 군부·내각의 조직과 인사를 거머쥐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김여정이 2인자 혹은 후계자로 지나치게 부상할 경우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김여정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스위스 유학을 함께한 데다 김정은이 '믿을 건 혈통뿐'이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고모부 장성택 처형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부자 세습을 통해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3대 세습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내 대(代)에서까지 세습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에 입헌군주제 사례에 관심을 나타낸 적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여름 스트로크로 인한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은 뒤 3개월 만에 겨우 복귀한 김정일은 당시 24살에 불과한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후계수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김정은 유고설 와중에 김여정은 권력 후계 최우선 순위로 꼽히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건재를 과시했다고는 하지만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관련해 아킬레스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10살 안팎의 아들을 포함해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고 시 대안이나 후계권력 문제를 둘러싼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